

R-12. 치주 질환과 흡연에 관한 환자의 인식 조사

: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비교

정지윤, 석희숙

서울 위생 치과병원 치주과

연구 배경

흡연이 전신 건강 뿐 아니라 구강 건강, 작게는 tooth staining과 같은 심미적 문제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구강암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치주 질환에서 흡연은 질환의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외과적, 비외과적 치주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렇듯 구강 건강, 치주 질환에 미치는 흡연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는 잘 정립되어 있는 반면, 치주 질환과 흡연에 관한 환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부족하다. 환자들의 흡연에 관한 인식은 환자의 구강 관리 능력, 치료 협조도, 금연에 대한 결심, 치료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것은 치료 성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치주 질환, 흡연에 관한 인식을 비교해 조사함으로써, 흡연 환자들의 치료를 성공으로 이끌 기초로 삼고자 한다.

material & methods

2006년 본 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술 전 설문지를 통해 치주 질환과 흡연에 관한 환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치주 질환을 겪고 있으면서,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고, 흡연자를 다시 10개피/day를 기준으로 light와 heavy smoker로 분류하였다. 설문지는 현재 치주 상태와 구강 관리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VAS), 흡연이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치료 후 결과에 대한 기대 등으로 분류한 13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환자는 scaling 후 임상적 부착 수준을 바탕으로 치주 상태를 진단 받았고, 구강 위생 교육과 3-4번에 걸친 전반적인 비외과적 치료(scaling & root planing)를 받았다. 1달 후 다시 치주 상태에 대한 자기 평가(VAS)를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분석은 Chi square test, Student t test (SPSS software package)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토의

흡연자는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남성이었으며, 그 비율은 전체 환자의 27%, 남성 환자의 47%였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heavy smoker는 비흡연자에 비해 더 심한 치주 질환을 겪고 있었고, 흡연자는 치주 질환에 미치는 흡연의 영향에 대해서 비흡연자에 비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 흡연자에게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치료 후 결과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았고, 실제로 치료 이행률도 낮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끝까지 치료를 이행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보다 치료 후 자기 평가에서 치주 상태가 더 좋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 결과, 흡연자의 인식 전환과 궁극적으로 치료 성공을 위해 흡연자에게서 비흡연자보다 구강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여야 함을 제시한다.